

고려 아미타8대보살도(9존도)의 도상학 연구

문명대*

- I. 머리말
- II. 아미타 극락회도의 유래
- III. 아미타 팔대보살(구존도)의 사상
- IV. 아미타 8대보살 배치 및 도상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불화의 특징과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불화로서는 아미타9존도 일명 아미타 8대보살도와 수월관음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9존도는 아미타불상과 협시인 8보살상의 도상을 합쳐서 통칭 아미타8대보살도라 말하고, 도상 형식으로는 아미타9존도라 말해지고 있다. 특히 아미타9존도는 아미타불화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존 아미타불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고려의 독특한 사다리꼴 2단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아미타9존래영도는 또 다른 도상 구도이지만, 상하 2단의 사다리꼴 구도는 고려의 독창적 도상 구도로 고려불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미타 8대보살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글에서는 첫째 아미타9존도 즉 아미타 8대보살의 유래를 살펴보고, 둘째 아미타8대보살의 사상을 밝히고자 하며, 셋째 아미타8대보살의 배치구도 및 도상 특징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이 방면 연구에 하나의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아미타 극락회도의 유래

고려의 아미타9존도 이른바 통칭 아미타8대보살도는 고려 특유의 도상으로 규정되는 독특한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도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형식은 정토삼부경의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서 아미타삼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삼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¹⁾ 또한 정토삼부경에서 설법대상자로 중요시되는 문수·보현·미륵보살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8대보살 가운데 관음·세지·문수·보현·미륵 등 5대보살은 아미타협시보살의 기본이 되므로 3대보살만 확보하면 8대보살이 구성된다. 이 3대보살은 어느 경에서 가져왔을까. 3대보살은 금강장 또는 금강수, 제개장 또는 제장애·지장보살인데 이 상들은 어느 경전에서 유래했을까하는 점이다.

이런 형식의 도상은 고려 8대보살도의 8대보살 도상을 계승했다고 생각되는 구례 천은사(泉隱寺) 아미타8대보살의 도상 명칭이 앞의 8대보살 명칭과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이 아미타극락회도 각 상 옆의 방제(傍題)에

“光明普照壽命難思 四十八大願無量壽如來佛 聞聲救苦觀世音菩薩 攝化衆生大勢至菩薩 文殊菩薩 普賢菩薩 金剛藏菩薩 除障礙菩薩 彌勒菩薩 地藏菩薩 ……”

이라 쓰여 있어서 이 아미타도는 48대원 무량수여래불이라 하였으므로 무량수경을 도상화한 아미타불회도임이 분명하다. 이 무량수불의 협시보살인 8대보살은 앞의 8대보살의 명호와 동일하므로 고려시대 무량수경의 8대보살은 이 8보살의 명칭이라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8대보살과 유사한 경전의 8대보살은 어느 경전에 있을까?

첫째 통일신라 때부터 조상경전으로 많이 활용했다고 생각되는 다라니집경의 8대보살과 8대보살 만다라경의 8대보살이다. 흔히 아미타8대보살을 8대보살만다라경의 8대보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 보다는 다라니집경의 8대보살을 더 활용했다고 판단된다.³⁾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은사 무량수경 8대보살과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 8대보살 그리고 8대보살 만다라경의 8대보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I의 무량수경 8대보살과 두 경의 명호를 비교하면 무량수경 제장애와 다라니집경의 허공장보살만 다를 뿐 7보살은 일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8대보살만라경은 허공장·제개장·금강수 등

1) ① 『정토삼부경』(『無量壽經』, 『觀無量壽經』)참조.

② 坪井俊映, 이태원역 『淨土三部經概說』(운주사, 1992.1)

2) 천은사 극락회도에 대해서 필자는 1970년대부터 여러 차례 조사하여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번 간략히 논의한 적이 있고, 유마리 선생에게 이에 대해서 조사자료 제공과 함께 논의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

유마리, 「泉隱寺 極樂殿 阿彌陀後佛幀畫의 考察」, 『美術資料』27(국립중앙박물관, 1980.12)참조

『阿彌陀佛畫 研究』(문화재청, 2013.3)재수록

3) 아지구다한역, 최윤옥·김영덕옮김, 『陀羅尼集經外, 보살부』(동국역경원, 1999.8)

〈八大菩薩(명칭)〉

	I. 천은사 무량수경 8 대보살	II. 다라니집경 8 대보살 (보살부)	다른 보살	III. 8 대보살 만다라경	다른 보살
1	관음(觀音)보살	관음(觀音)보살		관음(觀音)보살	
2	대세지(大勢至)보살	대세지(大勢至)보살		허공장(虛空藏)보살	×
3	문수(文殊)보살	문수(文殊)보살		문수(文殊)보살	
4	보현(普賢)보살	보현(普賢)보살		보현(普賢)보살	
5	금강장(金剛藏)보살	금강장(金剛藏)보살		금강수(金剛手)보살	×
6	제장애(除障礙)보살	허공장(虛空藏)보살	×	제개장(除蓋障)보살	×
7	미륵(彌勒)보살	미륵(彌勒)보살		미륵(彌勒)보살	
8	지장(地藏)보살	지장(地藏)보살		지장(地藏)보살	

3보살이 다른 것이다. 제장애와 제개장이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두(2)보살이 달라 다라니집경이 좀 더 천은사 무량수경 8대보살에 근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특히 금강장보살을 다라니집경에서는 3고저(발절라)로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부처님을 호위하는 중요한 보살로 강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고려 아미타8대보살은 무량수경을 기본으로 다라니집경 8대보살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8대보살 만다라경을 참고하여 고려 아미타8대보살로 창안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도상 특징인 지물은 다라니집경과 8대보살 만다라경, 존상불정수유가법의례 등을 참고하여 고려 8대보살도계인 지물로 활용했다고 판단된다.

III. 아미타팔대보살(구존도)의 사상

아미타8대보살이 60·80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 해당하는 40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근거한다는 일본학자의 설도 있지만⁴⁾ 보현행원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신앙 사상일 뿐 아미타정토신앙은 어디까지나 아미타정토삼부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천은사 아미타불회도의 아미타8대보살이 무량수경의 무량수불과 그 협시인 8대보살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무량수경에 근거하거나 아미타경에 근거

4) 이데교수는 고려 아미타 9 존도의 아미타 8 대보살 명호를 팔대보살만다라경에서만 찾았고, 持物 또한 한 경에서만 의존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井手誠之輔, 「高麗の阿彌陀八大菩薩像」, 『アジア佛教美術論集, 東アジアVI, 朝鮮半島』(中央公論美術出版, 2018.5)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토삼부경에는 아미타협시보살로 2대보살의 명호만 있지 8대보살의 명호는 없다. 아미타불을 봉안하는 극락보전의 후불탱화로 아미타불회도를 안치할 경우 대부분 벽면에 알맞은 그림은 아미타불과 8대보살, 그 외 2대제자 또는 10대제자, 4천왕, 8부중 등을 배치하게 된다. 정토삼부경에는 2대 협시인 관음과 대세지보살 외에는 문수, 보현, 미륵보살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다른 협시보살의 명호가 없기 때문에 8대보살을 배치할 경우 8대보살 명호가 있는 다른 경전에서 빌려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8세기경에는 아미타불회도를 조성할 경우 불공(不空)이 번역한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이나 8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陀羅經)에서 빌려오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들 경전에는 8대보살의 명호는 물론 도상 특징인 지물(持物) 즉 계인도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더구나 정토삼부경의 설법 인도자인 문수·보현·미륵보살도 8대보살에 있어서 금상첨화로 생각되었던 것 같다.

IV. 아미타8대보살의 배치 및 도상 특징

고려 아미타8대보살도의 8대보살 배치구성은 대부분 5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우선 배치구성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5형식의 아미타8대보살의 배치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모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관음과 세지보살은 정토삼부경에서 아미타불의 제1·2보살로 분명히 아미타삼존상의 보살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8대보살에 반드시 배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아미타8대보살의 배치

제 1 형 大和文華館소장 9 존도(수인) · 廣福護國禪寺 9 존도					
	向左보살(右)	수인지물(持物)	중앙	向右보살(左)	수인지물(持物)
4 열	지장(地藏)	왼손 보주, 오른손 시무외인	아미타불상	미륵(彌勒)	용화봉가지
3 열	제장애(除障礙)	두 손 금강저		금강장(金剛藏)	금강저
2 열	보현(普賢)	두 손 여의		문수(文殊)	왼손 경권, 오른손 시무외인
1 열	대세지(大勢至)	왼손 경권, 오른손 시무외인		관음(觀音)	보관 화불, 두 손 정병

제 2 형 동양미술관소장 · 松尾寺 소장 · 서원사 소장(手印)					
	向左보살(右)	수인지물(持物)	중앙	向右보살(左)	수인지물(持物)
4 열	제장애	금강저	아미타불	금강장	금강저
3 열	지장	두건, 왼손 여의주		미륵	보관 5 불, 오른손 용화꽃
2 열	보현	두 손 여의		문수	경권
1 열	대세지	보관 정병, 오른손 사각경함		관음	보관 화불, 두손 정병

제 3 형 ① 덕천미술관장(수인) ② 계암사 소장 아미타 9 존래영도(수인) ③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노영필)					
	向左보살(右)	수인지물(持物)	중앙	向右보살(左)	수인지물(持物)
4 열	지장	① 보주 ② 보주	아미타불	미륵	① 용화꽃 ② 용화꽃
3 열	보현	① 여의 ② 여의		문수	① 묘법연화경 ② 경권
2 열	제장애	① 금강저(삼고저) ② 삼고저		금강장	① 금강저 ② 금강저(1 고저)
1 열	대세지	① 보관 정병, 보주 ② 경함		관음	① 보관 화불, 두 손 정병 ② ①과 동일

제 4 형 川山奇家旧藏					
	向左보살(右)	수인 지물(持物)	중앙	向右보살(左)	수인지물(持物)
4 열	지장			미륵	
3 열	제장애			금강장	
2 열	대세지			관음	
1 열	보현			문수	

제 5 형 東京藝術大 소장(수인) · 연력사 소장					
	向左보살(右)	수인지물(持物)	중앙	向右보살(左)	수인지물(持物)
4 열	제장애	두 손 금강저(1 고저)	아미타불	금강장	보관 9 불, 합장(1 고저?)
3 열	대세지	보관 정병, 경함		관음	보관 화불, 두 손 발우에 버들가지 감쌌
2 열	보현	여의		문수	경권
1 열	지장	보관 두건 · 보주		미륵	용화꽃

둘째 관음과 세지는 대부분의 8대보살 배치에서 제1열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지만 열이 바뀐 배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1·2보살인 관음과 세지보살이 어느 열에 위치하는지는 아미타불의 협시로 어느 열에 있는 것이 돋보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아미타9존래영도의 경우 대부분, ① 관음 · 세지 ② 금강장 · 제장애 ③ 문수 · 보현 ④ 미륵 · 지장의 순서로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근진미술관 소장 아미타9존래영도의 수인도 다른 예와 거의 동일하다.

근진미술관 소장				
	向左보살(右)	수인지물(持物)	向右보살(左)	수인지물(持物)
4 열	지장	보주	미륵	용화꽃
3 열	보현	여의	문수	경권
2 열	제장애	금강저(1 고저)	금강장	금강저(1 고저)
1 열	세지	보관 보주형 정병	관음	보관 화불, 정병

넷째 지물이나 수인으로 알 수 있는 보살상의 명호는 보관 화불과 정병 또는 버들가지의 지물을 가진 관음보살과 보관정병의 대세지보살, 발절라인 금강저(삼고저나 독고저)지물의 금강장보살, 두건 또는 삭발형의 머리와 석장, 보주 지물의 지장보살 등은 거의 변하지 않는 도상특징이지만 경권 지물의 문수보살, 여의든 보현보살, 보관·탑과 꽃 든 미륵보살 등은 불변의 지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보살들은 때때로 근거 경전에 따라 지물과 수인이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이들 아미타8대보살이 아미타불과 결합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지장보살 이른바 명부에 떨어진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을 아미타사상이 수용하게 된 점이다. 원래 유가 범상종에서 지장을 먼저 수용했지만 고려중기가 되면 아미타사상은 명부 지옥 중생까지도 극락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이 결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장보살본원경과 대승대집 지장십륜경에 의한 지옥구제사상이 정도신앙에 수용되면서 8대보살만다라경이나 다라니집경 등의 8대보살 가운데 관음·대세지·지장보살이 아미타불과 결합되고, 여기에 8대보살도 자연 수용하게 된 것이다.

아미타9존도의 형식이 크게 유행하면서 아미타의 8대보살을 선정하면서 가장 편리한 예가 다라니집경이나 8대보살 만다라경의 8대보살이 손쉽게 결합할 개연성이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아미타8대보살은 무량수경 등 정도삼부경과 다라니집경, 8대보살만다라경 등 세 가지 경에서 유래한다는 점이다. 즉 고려 아미타8대보살은 무량수경을 기본으로 다라니집경의 8대보살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팔대보살만다라경을 참고하여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미타8대보살도의 조성사상은 정도삼부경(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과 이 가운

데 무량수경의 사상이 그 기본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 흔히 화엄경 입법계 품에 해당하는 40(四十) 화엄경 보현행원품이 그 사상적 근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사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아미타8대보살도의 배치구도는 대부분 5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8대보살이 4열로 배치되는 순서가 앞뒤로 바뀌는데 따른 형식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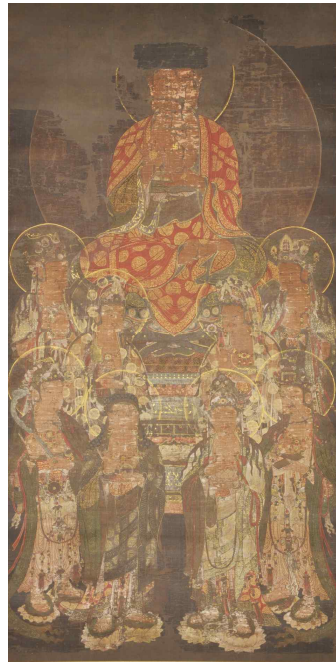
도1. 제1형 아미타9존도
(大和文華館소장)



도2. 제2형 아미타9존도
(서원사 소장, 용곡대학박물관
보관)



도3. 제3형 노영필 아미타9존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도4. 제5형 아미타9존도
(東京藝大소장)

고려 아미타8대보살도(9존도)의 도상학 연구

문명대

고려 아미타 8대보살도는 고려불화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불화로 평가된다.

첫째 아미타8대보살은 무량수경과 다라니집경, 8대보살만다라경 등 세 가지 경에서 유래한다는 점이다. 즉 고려 아미타8대보살은 무량수경을 기본으로 다라니집경의 8대 보살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팔대보살만다라경을 참고하여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미타8대보살도의 조성사상은 정토삼부경(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과 이 가운데 무량수경의 사상이 그 기본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 흔히 화엄경 입법계 품에 해당하는 40(四十) 화엄경 보현행원품이 그 사상적 근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사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아미타8대보살도의 배치구도는 5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8대보살이 4열로 배치되는 순서가 앞뒤로 바뀌는데 따른 형식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A Study on Iconography of the Painting of Amitabha Eight Great Bodhisattivas (9 Sacred Images) in Goryeo Dynasty

Moon Myung Dae *

The painting of Amitabha Eight Great Bodhisattivas in Goryeo dynasty is regarded as a very important Buddha painting which represents Buddha paintings in Goryeo dynasty.

First, Amitabha Eight Great Bodhisattivas come from three types of Sutras such as Sukhavatavyuha Sutra and Dharani Sutra, Eight Great Bodhisattiva Mandara Sutra.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Goryeo Amitabha Eight Great Bodhisattivas made the most use of Dharani Sutra's Eight Great Bodhisattivas based on Sukhavatavyuha Sutra, and founded it with reference to Eight Great Bodhisattiva Mandara Sutra.

Second, it is the most plausible to see that the composition thoughts of Amitabha Eight Great Bodhisattiva painting are three Pure Land Sutras (Sukhavatavyuha Sutra, Gwan_Sukhavatavyuha Sutra, Amitabha Sutra) and of them the thoughts of Sukhavatavyuha Sutra were the basis. The 40 (四十) Avatamsaka Sutra Bohyeonhaengwonpum corresponding to the Avatamsaka Sutra Ipbeopgyepum is often said to be the thoughtful basis,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is is only secondary thoughts.

Third, the layout of painting of Amitabha Eight Great Bodhisattiva is classified into five types, which revealed that the layout came from the fact that the order in which the Eight Great Bodhisattivas were arranged in four rows was changed back and forth.